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불합리 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 가맹점단체가 실질적 협상력 갖도록 해야 ... 수수료 증가 불만 해소

### 현재 자영업자 2.5~3.4%...대형유통업 1.6%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카드가맹점단체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가맹점단체가 카드사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연매출·거래액 9,600만원 미만'으로 규정한 카드가맹점단체 설립 기준에 맞

는 가맹점은 주로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영세한 업체(문구사, 철물점 등)여서 단체를 설립해도 실익이 거의 없고, 카드결제가 주를 이루는 음식점, 일반병원, 미용, 숙박업소 등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가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가맹점 신청서를 받은 후 수수료율을 사후 통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가 가맹점 신청서를 받을 때 표준약관에 수수료율 체계(수수료율 적용 기준 및 해당요율)를 명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해지 통보

를 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돼 매출 변동에 상관없이 계약당시 수수료가 계속 유지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실적을 계약만료 전에 가맹점에 통보도록 해 가맹점에서 수수료율 재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 매출액에 대한 입금 예정일을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하고, 월별로 수수료 공제 내역이 담긴 매입 및 입금명세서를 카드사가 가맹점에 발송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자영업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한 협상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게 돼 수수료율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가맹점단체를 구성해 카드사와 직접 수수료율을 협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진은 간성읍내 한 음식점에 설치된 카드체크기.

한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일반 도소매업종(2.5~3.4%)은 대형유통업(1.6%)에 비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동일업종임에도 백화점에 입주한

가맹점이나 골프장은 1.5%, 골목에 소재한 가맹점이나 미용실 등 생계형 업종은 3.0% 수수료를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최광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이 지난달 28일 고성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했다.

##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 중요”

###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이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고성 인흥지구 지식기반센터와 속초시 대포 수산가공특화단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박재순사장은 이날 인흥지구

현장에서 황종국 고성군수와 면담을 통해 고성군 관내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대포 수산가공특화단지 현장에서는 채용생 속초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치질없는 사업 마무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재순 사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해야 하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어민,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원광연 기자

###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 LG화학(05191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2011년도 12월 한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2012년의 흐름을 예상한 매매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달로서 매매의 총돌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올해도 상당한 힘겨루기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채 파생시장에 의한 숫자 놀음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물 시장의

흐름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수가 없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초대형주들의 움직임을 컨트롤 하면서 지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인위적인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움직이는 큰돈은 하락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해외증시의 상황과 맞물려서 시간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 초대형주와 개별주에서의 등락만을

반복하며 지수를 방어하는 수준으로서 매매 역시 단기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5일선 아래에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주목

해야 한다. 즉 지금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는 업종별 흐름도 없으며 초대형주의 순환 등락 흐름을 교묘하게 활용하며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일 뿐이다.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면서도 지수를 기준으로 매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큰 흐름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박스권 흐름에서는 추세적인 흐름이 없다는 것으로서 수익을 챙기면서 대응하는 매매가 현명한 판단이다. 결국 시장은 방향을 잡겠지만 중기매매는 박스권을 탈피하는 시점에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시장은 낙폭과대 종목들이 순환 상승 하며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흐름을 만들고 상승 흐름을 이끄는 형국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학주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매수의 자리를 제공 하게 될 것이다.

초대형주가 우선적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 현 시점에서 화학주의 시가총액 1위인 LG 화학을 300,000원을 마지노선으로 350,000원을 목표로 한 스윙매매를 노려 볼 수 있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